

2012년 주요 국가(지역)별 농수산물 수출전망

I. 2011년 농수산물 수출실적 ----- 3

II. 2012년 농수산물 수출전망 ----- 4

III. 2012 농수산물 국가(지역)별 수출전망 --- 7

* 부록 : 국제식품박람회 트렌드 분석

I

2011년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실적

□ '11년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은 사상 최대치인 76.9억불

- 국가 전체 수출증가율(20.5%)을 훨씬 상회한 30.7% 증가
- 주력 품목의 수출호조와 한국산 경쟁력 제고로 사상 최대치 기록
- ('09) 48 → ('10) 59 → ('11) 76.9억불

□ 인삼 등 신선농산물 수출은 10억불 진입

- 수산물 수출은 김 등 양식 수산물의 선전으로 20억불 초과
- 기존의 켈런, 참치, 인삼, 김 등에 이어 김치 등이 1억불 이상 수출되면서 1억불 이상 수출품목이 12개로 증가('10년 : 10개)

□ 지역별로는 대일 수출실적이 사상 최초로 20억불 초과

- 최근 주력시장으로 부상한 중국과 아세안 지역에 대한 수출 대폭 증가
- 중국 74.9%, 아세안 43.4%
- 1억불 이상 수출국도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등이 추가되면서 11개국으로 증가
- 1억불 이상 수출국 : 일본, 중국, 미국, 홍콩, 태국, 베트남, 대만, 러시아, UAE,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 2011년 한국 농수산물식품 수출실적 >

(단위 : 천톤, 백만불)

구분	2010		2011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체	2,947	5,880	3,480	7,691	18.11	30.68
농식품	2,311	4,082	2,793	5,383	20.87	31.87
<신선>	329	874	331	1,016	0.85	16.21
<가공>	1,982	3,208	2,462	4,367	24.19	36.13
수산물	636	1,798	687	2,308	8.07	27.99

1. 전망 개요

- ◆ **일본**은 재해 피해지역 중심의 신선농산물 수요 증가와 한류붐에 따른 한국 식품/요리에 대한 인기 지속 전망
 - * 소비위축에 따른 저가 제품 구매와 일본 제조업체의 한국풍 식품제조 경향은 장애 요인
- ◆ **중국**은 위안화 강세 및 식품안전 사고에 따른 수입식품 선호도 증가
 - *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위축과 수입식품 관리감독 강화 및 위조·유사상품 증가는 우려 요인
- ◆ **미국**은 추가 경기침체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소비자 구매심리가 다소 회복될 전망이며, 식품안전성 문제로 일본/중국산 식품 대체 품목으로 수요 확대 전망
- ◆ **홍콩**은 농식품 안전성 확보와 한류 등으로 인지도 상승 및 바이어, 유통업체의 한국산 취급 확대로 25~30% 수출증가 예상
- ◆ **대만**은 반한류 상존과 과실류 검역강화 등으로 한국산 농식품 취급 감소 및 소비 위축이 우려되나, 품질 우수와 안전성으로 기본 수요는 확보
- ◆ **아세안**은 비즈니스 한류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 식품과 식문화에 대한 선호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어 35% 정도 성장 전망
- ◆ **유럽**은 유럽 경제의 회복세, K-pop 인기 등 한류 선호 분위기, 한·EU FTA 효과 등 전반적인 한국식품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 예상
 - * 수산물류는 어획량 쿼터제 실시, 어획증명서 요구 등 까다로운 절차 도입으로 부정적 영향 전망

2. 부류별 전망

가. 신선농식품

국 가	수출 전망
일 본	원전 일대와 쓰나미 피해지역 신선 농산물 중심으로 지속적 수요 증가 예상(채소류, 과실류)
미 국	배, 버섯 등 주요품목의 수출부진 예상으로 전체적으로 수출 감소 예상
홍콩, 대만	김치, 인삼, 과실류 등 주력상품 확대로 20% 내외 증가
아세안	인삼류, 버섯류, 과실류 등 중심으로 40% 이상 증가 전망 - 단감, 사과, 포도 등 과실류 수출은 지속 증가추세. 버섯류는 팡이 버섯의 대형매장 입점 확대. 인삼은 주력업체의 공격적인 아세안시장 진출 공세
E U	현지 유통업체와 지속적인 판촉으로 인지도 제고 및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나 유럽산, 중국산과 가격경쟁으로 소폭 증가 전망

나. 가공식품

국 가	수출 전망
일 본	한류 및 한식의 인기로 막걸리 등 주류, 과자류, 소스류, 가공식품 전반의 수출증가 예상
중 국	소득증가에 따른 구매력 상승, 수입식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 내륙지역으로의 진출확대, 위안화 강세, 일본 지진 여파 등으로 꾸준한 가공식품 수출 증가 전망
미 국	소스류, 유제품, 과자류 등의 꾸준한 물량 증가 예상
홍콩, 대만	면류, 소스류, 주류, 과자류 등 인지도 상승으로 홍콩은 약 30%, 대만은 약 25% 증가 전망
아세안	한류 영향으로 한식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져 일반 소비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면류, 소스류, 음료 등의 증가 전망 - 대형매장 입점 확대와 한국 식품기업의 현지진출 등에 힘입어 30% 이상의 성장세 보일 것으로 전망
E U	한-EU FTA 발효 후 주요 가공식품(면류, 소스류 등)의 관세철폐로 수출 호조 예상

다. 수산식품

국 가	수출 전망
일 본	참치에 대한 어획규제 강화 등 감소 요인 있으나, 동일본 대지진 이후 동북지역 생산시설 회복 지연, 안전성 우려 등으로 수입산 의존도 다소 증가 전망
중 국	중국정부의 '12년 수입관세 인하정책 및 일본 지진여파에 따라 대중 수출호조세 전망 - 오징어, 참치 등 원양어업 제품의 어획고에 따라 변동성 있을 전망
미 국	일본산·중국산의 대체품으로 자리를 잡으며 수출증가 전망
홍콩, 대만	일본산 대체에 따른 수요 증가로 홍콩은 15% 가량, 대만은 20% 가량 증가 전망
아세안	태국의 참치, 김 등 식품가공 원재료용 수출 중심으로 지속 성장 전망 - 캐비어, 전복 가공제품, 훈제연어 등 신규품목의 수출증가 가능성 - 현 추세치 유지시 약 3억불 수준의 수출 전망
E U	국제 유가상승, 환율 불안정, 제3국에 대한 EU의 수산물 수입조건이 점차 까다로워져 보험세 유지 전망

Ⅲ

2012 농수산물식품 국가(지역)별 수출전망

일 본

1. 2011년도 수출현황

- '11년 수출액은 K-POP 등 한류 붐과 엔고현상에 따라 고른 수출 증가를 보였으며, 여기에 3·11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생수, 라면 등 구호품 및 미역, 굴 등 쓰나미 피해 품목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어 전년대비 22.5% 증가한 2,305.9백만불 기록

□ 수출실적

(단위 : 천톤, 백만불, %)

구분	2010		2011			증감률	
	중량	금액	중량	금액	비중	중량	금액
전 체	804	1,883	1,075	2,374	31%	33.6	26.08
농식품	648	1,023	906	1,380	26%	39.91	34.89
〈신선〉	74	331	85	356	35%	15.58	7.63
- 채소류	25	89	24	101	57%	-4.18	13.3
- 김 치	24	83	22	87	83%	-8.62	4.87
- 인삼류	1	30	1	33	17%	-4.13	11.02
- 화훼류	9	80	7	73	80%	-19.68	-8.81
- 과실류	9	20	10	26	13%	9.14	30.3
- 버섯류	1	2	1	3	8%	24.18	37.19
- 돼지고기	-	-	-	0	0%	6,954.6	6,499.31
- 가금육류	1	7	2	12	29%	63.71	67.77
- 산림부산물	3	20	18	21	12%	433.27	5.67
〈가공〉	574	692	821	1,024	23%	43.04	47.94
가공식품	563	681	757	937	24%	34.39	37.64
* 면 류	12	46	14	62	21%	19.56	35.77
* 소스류	5	14	6	17	11%	10.85	23.07
* 주 류	211	223	286	300	74%	35.45	34.54
* 과자류	49	86	58	124	33%	18.65	44.14
* 연초류	-	4	1	8	1%	76.67	87.58
* 낙농품	2	7	2	9	13%	8.42	23.54
- 목재류	10	11	17	19	20%	63.02	65.87
수산물	157	859	168	994	43%	7.51	15.6
- 어 류	64	520	61	557	42%	-5.6	7.11
- 연체동물	26	155	22	181	40%	-14.27	17.04
- 해조류	10	83	14	132	51%	47.37	58.35
- 갑각류	9	45	14	56	46%	47.52	23.92
- 기 타	47	57	57	68	42%	21.09	20.12

* 비중은 전체 수출 중 대 일본 수출비중

2. 2012년도 수출전망

2-1 지역경제 및 시장여건

□ 낙관적 요인

- K-POP, 한류 드라마, 한국 방문 관광객 증가 등 한류 붐을 통해 한국산 농수산물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요리의 인기로 한국 농수산물 저변화 확대 기회요인 작용
- 대형유통업체, 외식체인점 등의 한국식품 페어의 정례화 및 인기 상승으로 한국식품 관심도 제고 및 엔화 강세에 따른 수출여건 양호
- 원전사고에 따라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인근 피해지역 주요 신선농수산물 수입 증가 예상
 - 일본 농식품 수입 통계(1~10월) : 66,602억엔(전년동기 대비 13.0% 증가)
- 지진피해 복구 관련 일본 동북지역 경제 활성화 예상에 따라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류 및 한식문화 전파가 미진한 동북지역 시장개척 가능성 증대
- 식문화가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워 식품 및 신선농식품 수출 대응 장점

□ 비관적 요인

- 3·11 동일본 대지진 피해복구를 위한 세금인상 우려 및 장기적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침체, 고용불안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 지진 피해 복구 등을 위한 일본정부의 소득세, 소비세 등 각종 세금 인상 움직임
 - 유명백화점 폐점 등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매출은 감소한 반면 편의점, 100엔 스토어의 매출 증가 및 유통업체, 편의점 등의 PB상품 취급 증가
- 일부 품목의 과당경쟁 및 전략상품 부재로 인한 수출경쟁력 저하

□ 종합의견

- 재해 피해지역 품목을 중심으로 신선농수산물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수출물량 확보, 안전성관리, 바이어 산지시찰 등 지속 지원 필요
- 한류붐이 지속되어 한국식품, 한국요리에 대한 인지도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소비위축에 따른 저가격 제품 구매 경향의 심화 및 일본 제조업체의 한국풍 식품제조 경향의 증가는 한국산 가공식품 수출확대에 다소 장애요인으로 작용 전망

2-2 주요품목별 수출전망

□ 개관

- 신선농식품 : 원전일대 및 쓰나미 피해지역 신선 농산물을 중심으로 지속적 수요 증가 예상(채소류, 과일류)
- 가공식품 : 한류 및 한식의 지속적인 인기로 제3맥주, 막걸리 등 주류, 소스류, 과자류, 가공식품 전반적으로 수출증가가 예상됨
- 수산식품 : 대일 수산물 최대 수출품목인 참치에 대한 어획규제 강화 추세 등 감소 요인은 있으나, 동일본 대지진 이후, 동북 지역 생산시설 회복지연, 안전성 우려 확산 등으로 수입 수산물에 대한 의존도는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

□ 품목별 전망

주요 품목	'11 실적	'12전망	전망근기
김치	86.8 백만불	보합세 또는 소폭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인의 미각에 맞춘 단맛의 일본산 김치 인기, 일본 김치 제조업체의 홍보 마케팅 강화, 뛰어난 제품개발력 등을 바탕으로 일본산 김치의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한국산은 보합세 또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임
채소	72.3 백만불	소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전 피해지역 인근 채소류에 대한 오염 풍문 등에 따라 수요는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저가격 구매경향 증가에 따른 가격경쟁력이 수출 성사의 관건 - 파프리카는 지진으로 위축되었던 외식시장이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다소 증가 전망 - 딸기는 업무용(케익 등) 수요 시장개척 등으로 증가세 이어갈 것으로 전망 - 팥이버섯의 판촉전 강화에 따른 한국산 버섯 인지도 상승으로 다소 증가 전망
화훼류	73.2 백만불	소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년도는 성수기인 3월 동일본 지진에 따른 행사 축소 등으로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12년도에는 회복 예상
인삼	33.1 백만불	소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년부터 인삼공사의 판매점 확대 및 관서, 큐슈지역 사무소 개설 등 마케팅 강화에 따라 수출 증가 전망 * ('10) 29.8백만불 → ('11) 33.1
가금육 (닭, 오리)	12.2 백만불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 붐과 한국요리의 인기에 힘입어 수출 증가추세로 특히 삼계탕이 미용과 건강에 효과가 있다는 일본 소비자의 인식제고 등으로 수출 증가 전망 * ('09) 4.3백만불 → ('10) 7.3 → ('11) 12.2
주류	299.9 백만불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고와 경기침체에 따른 저가격 맥주수요의 확대에 따라 제3맥주의 지속적인 인기가 전망되며 '11년도 이온그룹의 PB맥주 발매로 맥주 수출도 지속 확대 전망 * 제3맥주·맥주 '11년도 전년비 각각 43%, 33배 ↑ - 막걸리는 일본내 대형주류업체 연계한 유통망 확대 및 프로모션 강화를 통해 수출증가 예상되나 증가폭은 둔화 전망 * ('01) 0.8백만불 → ('10) 15.6 → ('11) 48.4
가공식품 (주류 포함)	936.9 백만불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 붐을 통한 한국 식문화 전파와 대형유통업체 한국 판촉전 개최, 식품기업 유망 신상품 유통업체 소개 등을 통해 수출 증가세 지속 전망 - 한국관광객 입소문에 따른 과자류, 면류, 한류 연예인을 활용한 음료, 식문화 전파에 따른 장류 등 소스류, 한국의 포장마차 제품 인기 등에 따른 호떡, 떡볶이 등 인기

주요 품목	'11 실적	'12 전망	전망 근거
수산 식품	993.6 백만불	소폭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수출품목인 참치의 어획규제 강화 추세이나,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산리쿠지역 생산 감소 및 안전성 우려 확산 등으로 전복, 굴, 미역 등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 전망 - 참치는 어획규제 강화 추세에 따른 어획량 감소 및 가격상승 등으로 전년수준 수출 전망 - 넙치는 점진적으로 쿠도아총 식중독 우려 불식 및 일본내 소비회복 예상으로 전년수준 이상 수출 전망 - 전복은 주산지(이와테현 등) 생산 급감에 따른 전반적인 공급 부족 예상으로 한국산 대체 수요 증가 전망 - 굴은 동북산 굴 생산량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한국산 냉동가공굴 대체 수요는 증가 전망 - 김은 동북산 김 생산량 감소와 방사능 검사 실시에 따른 공급 부족이 예상되어 가정용 PB상품과 업무용으로 한국산 김 수요 증가 전망

중 국

1. 2011년도 수출현황

- 2011년 대 중국 농식품 수출은 역대 최고의 증가율을 실현하여 수출액은 연초 목표 1,000백만불을 초과하여 1,179백만불 달성
 - 수출 : ('09) 565 (4.8% ↑) → ('10) 787 (39.2% ↑) → ('11) 1,179 (49.8% ↑)
- 최근 3년간 대중국 농식품 수출은 30%대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1년의 경우 원양수산물 수출이 크게 증가
 - * 농식품 : ('08) 349백만불 → ('09) 419 → ('10) 556 → ('11) 615 (37.7% ↑)
 - * 수산물 : ('08) 190백만불 → ('09) 145 → ('10) 231 → ('11) 465 (101.3% ↑)

- 주요 농식품 수출품목(10백만불 이상)은 자당, 홍삼, 대두유, 조제분유, 유자차, 라면, 양란
 - '11년 증가품목 : 자당(48% ↑), 홍삼(247% ↑), 대두유(103% ↑), 조제분유(203% ↑), 유자차 (19% ↑)
 - '11년 감소품목 : 라면(6% ↓), 양란(31% ↓), 팽이버섯(29% ↓)
- 수산물은 대구, 어란, 참치, 명태, 김 등이 있으며 김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산물은 원양어업에 의해 수출
 - '11년 증가품목 : 오징어(148 ↑), 대구(157% ↑), 어란(318% ↑), 명태(45% ↑), 김 (101% ↑),

□ 수출실적

(단위 : 천톤/백만불)

구분	2010		2011			증감률	
	중량	금액	중량	금액	비중	중량	금액
전 체	474	787	695	1,381	18%	46.5	75.41
농식품	368	556	540	916	17%	46.82	64.76
<신선>	53	109	63	153	15%	20.52	39.87
- 채소류	1	6	1	7	4%	12.47	19.2
- 김 치	-	-	-	-	0%	-48.07	-37.89

구분	2010		2011			증감률	
	중량	금액	중량	금액	비중	중량	금액
- 인삼류	-	16	1	46	24%	53.42	182.46
- 화훼류	3	19	2	13	14%	-36.51	-30.43
- 과실류	24	30	24	37	19%	0.92	22.99
- 버섯류	5	6	3	5	13%	-36.75	-24.04
- 돼지고기	-	-	-	-	0%	62.56	75.11
- 가금육류	-	-	1	1	2%	561.72	33.93
- 산림부산물	19	31	32	43	25%	66.48	42.32
<가공>	315	447	476	764	17%	51.21	70.83
가공식품	240	391	327	543	14%	36.45	38.71
* 면 류	4	40	5	42	14%	25.93	5.46
* 소스류	5	26	7	32	21%	27.76	24.35
* 주 류	12	14	15	16	4%	31.64	13.54
* 과자류	7	43	37	77	20%	416.31	76.7
* 연초류	-	8	1	14	2%	22.67	78.55
* 낙농품	2	16	3	26	39%	52.14	57.72
- 목재류	75	56	24	19	20%	-68.74	-65.95
수산식품	107	231	155	465	20%	45.43	101.03
- 어 류	70	136	93	226	17%	33.7	66.36
- 연체동물	23	53	40	128	28%	70.07	143.21
- 해조류	7	14	10	25	10%	56.07	81.49
- 갑각류	1	10	3	36	29%	149.41	259.91
- 기 타	5	19	8	50	31%	53.16	164.18

2. 2012년도 수출여건

<긍정적 요인>

□ 위안화의 지속 강세 전망

- 중국 주요 연구기관에 따르면 2012년 중국 위안화는 지속적인 강세를 유지하고 상승폭은 3~5% 상승할 것으로 전망('11년 상승률 4.86%)

* 중국건설은행, 중국사회과학원금융연구소

□ 내수확대를 위한 경제정책 지속 시행

- 중국은 "12.5기간"('11~'15) 중 평균 성장을 7% 목표로 연착륙 경제운용 기조 가운데 국내 소비 확대에 전환

- 기존의 내수확대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정부 주도 투자 기조는 2012년에도 유지하고 특히 인민생활개선을 통한 내수확대에 주력

□ 인터넷 쇼핑, TV홈쇼핑 등 온라인 시장규모가 빠르게 증가

- 2011년 네티즌 수는 5억명이며, 이중 1.6억명이 온라인 거래경험
- 온라인 시장규모는 U\$6,600억불로 대형화, 전문화 되어가고 있음
 - * 온라인 시장확대는 유통망이 부족한 수입식품에 새로운 시장개척 기회 제공

□ 중국 중·서부 내륙지역이 신흥시장으로 부상 중

- 정부의 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로 도·농, 동·서부간 격차해소
- 중·서부지역 경제성장 가속화로 내륙 2~3선도시 부상 전망
 - * 2011년 증가율 : 동부지역투자 24.9% 중부지역 29.7% 서부지역 29.6%

□ 끊임없는 식품안전 사고로 수입식품 선호도 지속 증가

- '09. 6월 식품안전법 시행 등 식품안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강하나 계속되는 안전사고 발생으로 중산층까지 수입식품 선호
 - * 멜라민 분유('08.11), 약물 돼지고기('11.3), 염색만두('11.4), 독 콩나물('11.4), 우유 발암물질 검출('11.12) 등
- 과거 맛과 가격 위주 소비에서 건강과 웰빙 소비로 전환
 - * 중상층과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수입식품 구매로 전환

<부정적 요인>

□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국가간 경쟁 과열

- 선진국 시장전망 불투명으로 중국 내수 공략을 위해서 미국, 유럽 등 국가 간 경쟁이 과열되고 ECFA를 체결한 대만의 확대 진출이 예상

□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 위축 우려

- 높은 물가상승과 부동산 가격 거품으로 소비위축 우려, 중국 정부는 최근 개인소득세를 낮추고 상공계열 자영업자의 소득세를 낮추는 등

개인소득 확대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물가안정과 부동산가격 안정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

□ 수입식품 관리감독 강화, 위조·유사상품 유통 증가

- 중국정부는 '12. 4월부터 라벨링 규정 관리 강화 등 수입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강화
- 조미김, 미역, 과자류 등 한국산 유명브랜드 제품의 위조 상품 및 유사상품의 유통 증가

<종합의견>

- 일부 부정적 요인이 있으나 소득증가에 따른 구매력 상승, 수입식품 선호도 상승, 위안화 강세 등으로 대중국 수출여건은 전반적으로 양호

3. 2011년 수출전망

□ 수출전망

- (농 식품) 소득증가에 따른 구매력 상승, 수입식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 내륙지역으로의 진출확대, 위안화 강세, 일본 지진여파 등으로 가공식품 수출은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수산식품) 중국 정부의 '12년 수입관세 인하정책 및 일본 지진 여파에 따라 대중 수출 호조세가 전망되며 오징어, 참치 등 원양어업 제품의 어획고에 따라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

□ 주요 품목별 전망

부류	품목	'11실적 (증가율)	'12전망	수출전망
인삼류	홍삼 뿌리삼	39,210 (247.2)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삼공사의 중국 내 직영점 및 가맹점 확대 등 수출네트워크 확충 중국 고소득층 증가에 따른 건강식품 수요 지속증가로 수출 증가 전망
	인삼 가공품	5,741 (174.0)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식품 수요증가와 TV홈쇼핑 등 인삼제품 마케팅 강화로 뿌리삼 위주에서 가공품으로 수요확대 추세로 수출 증가 전망 * 2011년 홍삼조제품(29.6%), 홍삼정(114.7%), 인삼음료(94%), 홍삼분(167.8%) 등 인삼 관련제품의 고른 증가로 전체 수입액 증가
소스류	간장	1,528 (△1.4)	보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용도의 중국간장과는 달리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한국 특색을 나타내기 어려운 제품이어서 시장 확대에 어려움으로 작용 수출액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합세를 유지할 전망
	된장	1,135 (22.1)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식당을 찾는 중국인들이 증가하면서 한국 불고기와 쌈 문화에 대한 인지도 증가로 증가 전망. 다만, 중국현지 생산을 감안하면 큰 폭의 수출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고추장	3,637 (56.8)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비빔밥과 떡볶이 등 한식의 현지인 소비가 증가추세에 있음 특히 현지인이 운영하는 한식당이 증가추세에 있어 식재료 용으로 수입되는 국산 고추장 소비가 늘어나고 있어 수출 증가 전망
	마요 네즈	4,355 (52.2)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채식수요 증가로 마요네즈 수요증가 한국산 마요네즈의 소매가는 일본과 중국의 중간 수준이나 품질은 일본산과 비슷하여 시장경쟁력이 높음 일본지진으로 일본산 마요네즈 수입이 어렵고 업소용(3.2kg) 수요까지 늘어 한국산 마요네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수출증가 전망
주류	소주	5,354 (6.9)	소폭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드라마 시청확대에 따른 소주의 인지도 증가, 낮은 도수, 한식당을 찾는 중국인 증가로 수출 소폭 증가전망
	맥주	5,932 (50.4)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경, 상해 등 1선도시와 2선도시 주요 대형매장, 백화점 등 현지 주류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어 수출증가 전망
	막걸리	1,297 (42.2)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막걸리는 교민시장 위주이나 북경 및 상해 주요 대형매장, 백화점 등 현지 주류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어 수출 증가 전망

부류	품목	'11실적 (증가율)	'12전망	수출전망
유 제 품	생우유	415 (△12.8)	소폭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우유에 대한 현지 수요는 매우 높은 편이나 한국 구제역 발생에 따른 수출물량 부족으로 상반기에는 수출 보합전망 ○ 작년말부터 송아지 생산증가로 금년 1분기부터 원유생산량 회복세 지속 전망되어 하반기에는 전년대비 수출 소폭증가 예상
	조제 분유	23,847 (202.6)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소황제 의식과 멜라민 분유 파동으로 수입산 분유 수요 급증 ○ 매장 입점 확대 등 인지도 제고로 수출은 지속 증가할 전망
기타 가공 식품	커피	50,839 (17.7)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차 문화에서 서구 커피문화 확산으로 커피시장의 확대가 두드러지고 있음 ○ 스타벅스, COSTA 등 중국 내 커피 프랜차이즈 붐이 일어 젊은 층 유인 ○ 한국산 커피는 관세 30%, 증치세 17%로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편이나 뛰어난 동결건조 기술로 커피 향의 보존이 우수하여 중국소비자들이 선호(중국커피는 네스카페 위주)하여 수출 증가 전망
	유자차	16,565 (19.1)	소폭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작황 부진으로 수출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며,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 수출액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
	자당	142,842 (47.8)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년 원당선물가격은 연초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파종시기인 3~4월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나, 이상기후와 투기자본의 가격인상 복병은 여전히 존재 ○ 중국은 원당 정제기술 부족으로 설탕품질이 낮아(알갱이가 큼), 고급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 기피하고 있고, 만성적인 설탕 부족 국가로 수입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한국산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대두유	32,922 (102.9)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소비용 식용유도 있으나 교민위주로 소비가 되고 있으며, 현지 수요는 크지 않음 ○ 일반 정제유가 아닌 crude oil(조유)의 수출이 대부분이며,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조유 수출액 지속 증가 전망됨 * 중국은 대두유 절대 부족국가로 매년 4~5,000만 톤 대두(대두유 포함)를 수입
	라면	26,687 (△5.9)	보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생산으로 인해 수출확대 어려우나, 현지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수출은 보합 전망
	비스킷	15,121 (114.9)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산 가공식품 대체효과가 큰 품목이자,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품목으로 대도시 대형유통매장과 함께 지방도시 로컬 편의점 등으로 판로가 확대되는 등 현지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수출 증가 전망

부류	품목	'11실적 (증가율)	'12전망	수출전망
화 훼 류	심비 디움	12,679 (△30.8)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년 이른 춘절(1.23)과 '13년 상대적으로 늦은 춘절(2.10)로 인해 '12년도 전체 수출액은 감소 전망 * '13년 춘절 수요용 물량은 품질이 좋은 만생종 출하 가능하여 수출액은 '12년 춘절용 물량에 비해 증가 전망
채 소 버 섯 류	채소 종자	5,189 (29.2)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 채소종자는 당근, 고추, 무, 배추종자의 수요가 증가 추세 ○ 과거에는 북방시장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남방지역 공급도 증가추세에 있어 수출 지속 증가 전망 * 연간 3~4회의 농사가 가능한 남방시장 중요성은 커지고 있음
	팽이 버섯	4,569 (△29.2)	보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내 팽이버섯 생산시설 증가로 인한 공급 증가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수출여건 악화 전망 ○ 한국내 팽이버섯 가격상승에 따른 공급부족으로 연초에는 수출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3월 이후 수출량 점차 증가 전망
수 산 식 품	수산물	464,818 (101.0)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정부의 2012년 수입관세 인하정책 및 일본 지진 영향에 따라 대중 수산물 수출 호조세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인하 수산 품목에는 냉동대구(10%→2%), 수정어란(10%→0%), 넙치(12%→2%), 해조류(15%→2%) 등의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품목은 한국의 대중 수출 상위 수산물임 - 오징어, 참치, 삼치 등 원양어업 품목의 어획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있을 전망이며, 김, 미역 등 해조류의 경우 스낵 김 수요확산 및 일본 지진발생 여파로 인해 지속적인 증가 전망

미 국

1. 2011년도 수출현황

□ 2011년 수출 실적

-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한 582백만불 달성
- 신선농산물 : 대미 수출은 전체적으로 8.8% 감소
 - 미국내 소비 시장 위축 및 경쟁국인 칠레/캐나다산 등의 수입물량 증가로 인해 배의 경우 전년도 대비 6.2% 감소
 - 버섯류의 경우 팡이버섯은 4.3% 증가했으나, 전체적으로는 13.1% 감소
- 가공식품
 - 지속적인 프리미엄 제품 투입 및 해외신규시장 개척 확대에 의해 소스류(21.7%), 면류(10.1%), 주류(17.1%) 등 전반에 걸쳐 11.2% 수출 증가
- 수산식품
 - 일본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인한 일본산 수입 감소에 따른 한국산 수산 제품의 수요 대체로, 김(64.8%), 미역(41.8%), 굴(23.1%), 어류 제품(11.6%), 기타 어류(29.6%) 등 전체적으로 27.2% 수출 증가

□ 품목별 수출실적

(단위 : 천톤/백만불)

구분	2010		2011			증감률	
	중량	금액	중량	금액	비중	중량	금액
전 체	189	519	194	600	8%	2.9	15.66
농식품	161	377	165	419	8%	2.36	11.3
〈신선〉	37	84	26	77	8%	-29.93	-8.82
- 채소류	10	20	4	14	8%	-64.48	-27.29
- 김 치	1	3	1	3	3%	-8.59	3.65
- 인삼류	1	10	1	11	6%	-16.82	15.7
- 화훼류	-	1	-	2	2%	23.08	45.08
- 과실류	19	35	16	35	18%	-12.42	-2.21
- 버섯류	4	7	3	6	16%	-21.45	-13.1
- 돼지고기	-	-	-	-	0%	167.25	9.5

구분	2010		2011			증감률	
	중량	금액	중량	금액	비중	중량	금액
- 가금육류	-	-	-	-	0%	-74.33	-65.03
- 산림부산물	2	9	1	6	3%	-46.58	-29.25
<가공>	125	292	139	342	8%	11.87	17.11
가공식품	121	288	134	320	8%	10.56	11.1
* 면 류	18	46	19	51	18%	6.4	9.93
* 소스류	13	25	14	30	19%	14.05	21.62
* 주 류	15	18	17	22	5%	9.45	17.11
* 과자류	10	38	11	45	12%	12.75	19.14
* 연초류	1	31	1	29	5%	20.35	-6.07
* 낙농품	4	4	4	4	6%	6.4	17.05
- 목재류	4	4	5	5	5%	24.54	15.78
수산식품	27	142	29	181	8%	6.1	27.14
- 어 류	8	63	10	79	6%	31.48	24.77
- 연체동물	10	33	9	41	9%	-8.18	24.86
- 해조류	6	32	7	49	19%	11.01	49.65
- 갑각류	1	7	1	7	6%	-15.62	-9.64
- 기 타	3	6	2	6	4%	-20.84	-10.22

2. 2012년도 수출전망

2-1 미국 경제 및 시장여건

□ 낙관적 요인

- 2012년 미국 경제는 경기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
 - 2011년 3분기 이후 실물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업률이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
- 한미 FTA 발효에 따른 한국산 농식품 수출 가격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
 - 대상품목이 한정적이므로 즉각적인 수출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향후 비관세장벽(검역 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강화로 수출확대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전년도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의 구매 기피 현상과 중국산 식품의 지속적인 안전성 문제로 일본 및 중국산 농식품의 대체품목으로 자리 잡을 경우 수요 확대 전망

□ 비관적 요인

- 2011년에 이어 대규모 재정 적자로 재정 및 통화 정책 시행의 어려움, 유럽 재정위기 등 외부 충격의 불확실성 등으로 저성장 기조를 지속할 전망
- 정부 지출 규모 축소, 고용 창출법안 등 경제 현안에 대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행정 부처와 의회의 대립이 지속되는 등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하반기 리스크 요인
- 장기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자 구매 심리 압박으로 인한 개인 소비 지출 축소 전망
 - 원자재 가격 상승, 소비자 물가 상승, 원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식품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한 개인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

□ 종합의견

- 2012년 재정 및 통화 정책 시행의 어려움, 유럽 재정위기 등 외부충격의 불확실성등으로 불안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2% 내외의 저성장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하지만 미국의 추가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축되었던 소비자 구매 심리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
 - 미국 경제 성장률이 2011년도 1.8%에서 2.0%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
 - 소비지출 증가율이 작년과 거의 동일한 2%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미국내 확산되고 있는 식품 안전성 문제의 대두로 인한 일본/중국산 식품 대체 품목으로 수요 확대 전망
 - 일본산 식품의 구매 기피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또한 중국산 식품의 신뢰성 저하 등으로 인해 일본/중국산 농식품 대체품목으로 수요 확대 전망

- 히스패닉 / 중국계 소비자들의 한국산 제품의 인식 제고로 인해 한국산 식품들의 수요 증대
 - 주요 가공식품류인 면류, 소스류, 과자류 및 유제품 등의 꾸준한 수요 증대
 - 김/미역 등의 해조류와 어류 등의 대미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2-2 주요품목별 수출전망

□ 2012년 수출 전망

- 신선농산물: 배, 버섯 등 주요 품목의 수출부진 예상으로 전체적으로 수출물량 감소 예상
- 가공식품: 소스류, 유제품류, 과자류 등의 꾸준한 수출물량 증가 예상
- 수산식품: 일본산/중국산 대체품으로 자리를 잡으며 수출물량 증가 예상

□ 품목별 전망

- 신선농산물

주요품목	'11 실적	3년간 증가율	'12 전망	전망 근거
신선식품	과실류 34.5 백만불 (2.2% 감소)	0.46%	소폭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실류 주 수출품목(사과, 배, 단감, 감귤)의 기존관세는 미미하며(0.3센트/kg~2.2%) FTA 체결에 따라 즉시 철폐될 예정임. 하지만 과실류의 경우 관세보다는 검역 및 농약 안정성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FTA 체결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 ○ 작년 수출된 사과는 품질불량과 미국내 시장가격보다 높은 거래로 인해 금년 역시 수입 물량이 많지 않을 예정 ○ 미국 생산 신고배 품질의 꾸준한 향상과 칠레산 등의 수입 물량 증가로 인해 한국산 배 수입 감소 전망 ○ 작년 수출이 재개된 감귤의 품질이 좋지 않아 금년초 수출물량이 전반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
	김치 2.7백만불 (3.7% 증가)		7.18%	보합세

주요품목	'11 실적	3년간 증가율	'12 전망	전망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주류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은 대부분이 현지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수출 물량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
인삼류	11.1 백만불 (16% 증가)	10.35%	소폭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미 FTA 비준 후 인삼차 등 인삼 함유 식품, 인삼음료, 엑기스류 등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인삼 가공식품 수출 물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 수년간 한국산 인삼 우수성에 대한 꾸준한 홍보로 중국계 및 아시안계 고객들의 구매 증가
화훼류	1.9 백만불 (45.2% 증가)	6.0%	소폭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콜롬비아, 캐나다 등 미국 근접 국가들의 화훼 생산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화훼 시장 잠식이 예상되며, 국내 선인장, 관상용 난 생산에 차질이 예상되어 대미수출용 물량이 제한될 전망
채소류	14.4 백만불 (27.3% 감소)	△0.08%	보합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소류의 경우 대미 수출관세가 크지 않아 관세 즉시 철폐에 대한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미국내 자체 생산량 증대와 멕시코 등의 채소류 미국 수출 물량 증대 예상 일부 채소 종재(고추, 배추, 무 등) 수출은 꾸준히 증가 예상
버섯류	5.9 백만불 (13.1% 감소)	△4.14%	소폭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버섯의 경우 5년 균등 철폐로 즉각적인 수출확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현재 캐나다산과 중국산의 미국 시장 진출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중국산에 비해 품질 대비 가격이 저렴한 것이 강점으로 중국계 마트 수요 증대 예상

※ '12 전망은 2009~2011년 3년간 연평균 증가율 기준 적용 : 보합세, 소폭 상승, 대폭 상승, 소폭 감소, 대폭 감소 총 5가지 방법으로 산출

1. 보합세: 연평균 증가율과 동일한 수준
2. 소폭 상승: 연평균 증가율보다 높고, 2배 증가된 수치보다 낮을 경우, 대폭 상승: 2배 이상 증가시
3. 소폭 감소: 연평균 증가율보다 낮고, 2배 감소된 수치보다 높을 경우, 대폭 감소: 2배 이상 감소시

○ 가공식품

주요품목		'11 실적	3년간 증가율	'12 전망	전망 근거
가 공 식 품	면류	50.7 백만불 (10.1% 증가)	5.01%	소폭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류 소비는 미국내 저탄수화물 섭취 경향으로 전체적으로는 소비량이 줄어 들고 있는 추세이나, 요리의 편리성과 저렴한 가격을 기반으로 히스패닉계 고객들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음 ○ 현지 교포의 꾸준한 소비와 중국계 소비자들의 한국산 라면에 대한 인식 강화로 수요 증대 예상
	소스류	30.4 백만불 (21.7% 증가)	10.77%	대폭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장, BBQ 소스(6.4%) 등의 경우 관세가 즉시 철폐 또는 5년 내 철폐 예정되어 있어 가격 경쟁력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수출 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수출업체들의 간장 및 BBQ 소스류 미국 시장 개척 및 제품 다변화로 인한 수출 물량 증대 예상
	주류	21.5 백만불 (17.1% 증가)	9.82%	소폭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향후 관세 즉시 철폐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 ○ 소주 및 과일주 등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막걸리류의 수출 호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과자류	45.6 백만불 (19.2% 증가)	11.05%	소폭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교포들의 꾸준한 소비와 아시안계/중국계 소비자들의 한국산 스낵류 선호로 인한 수요 증대 예상
	유제품	4.3 백만불 (17.1% 증가)	5.58%	대폭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포 마켓 및 히스패닉/중국계 마트에서도 빙과류 및 요구르트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 ○ 통관/검역시 유제품 함유량이 낮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수출 쿼터제한을 받지 않으며, 관세도 낮아 수출 물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

※ '12 전망은 2009~2011년 3년간 연평균 증가율 기준 적용 산출

○ 수산식품

주요품목		'11 실적	3년간 증가율	'12 전망	전망 근거
수 산 식 품	김 / 미역	해조류 전체 48백만불 (49.7% 증가) 김: 38.6백만불 (64.8% 증가) 미역: 6백만불 (41.8% 증가)	24.13%	대폭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원전 사고 영향으로 인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감소에 따른 한국산 수산 제품 수요 증대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 김의 경우 한인교포시장, 일본계, 중국계 마켓으로 유통이 증가되고 있으며, 스시 문화의 보편화에 힘입어 주류 미국인들의 인지도와 소비가 점차 늘고 있는 상태
	기 타 어 류 제 품	어류: 78백만불 (24.8% 증가)	8.31%	대폭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원전 사고 영향으로 인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감소에 따른 한국산 수산 제품 수요 증대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 하지만 반가공상태의 건어물, 김, 미역, 다시마 등은 특별한 샘플조사 없이 FDA수입신고를 거쳐 수입되고 있었으나 작년초에 개정된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으로 인해 좀 더 강화된 규정과 통관절차를 적용받고 있음. 예로 보통 5인치 이상의 생선 식품만 표본조사를 했으나, 이제는 5인치 이하의 멸치같은 제품도 샘플검사 등 억류조치가 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강화된 규정에 맞는 수출 전략 수립이 필요
		연체동물: 42백만불 (25.2% 증가)	12.76%	대폭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징어(냉동)의 경우는 기존에 이미 무관세로서 FTA 이후 특별한 수출증대는 없을 것으로 예상 ○ 작년말 한국 근해 오징어 어획의 풍년으로 미국 수출 물량 확대 노력이 예상됨

※ '12 전망은 2009~2011년 3년간 연평균 증가율 기준 적용 산출

홍콩

1. 2011년도 수출현황

- '11년 한국 농식품 수출액은 302.5백만불로 전년 대비 24.1% 증가
 - 일본 쓰나미, 대만산 플라스틱 가소제 사건 등으로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증가품목은 김치(35.8% ↑), 인삼(40% ↑), 과실류(54.8% ↑) 등이며, 감소품목은 채소류(3.8% ↓), 버섯류(61.4% ↓), 유제품(52.3% ↓) 등임

□ 수출실적

(단위 : 천톤/백만불)

구분	2010		2011			증감률	
	중량	금액	중량	금액	비중	중량	금액
전 체	194	244	201	305	4%	3.48	25.32
농식품	192	216	199	274	5%	3.3	27.07
〈신선〉	13	59	12	69	7%	-5.6	17.92
- 채소류	1	9	1	8	4%	2.14	-3.74
- 김 치	1	2	1	2	2%	27.45	35.81
- 인삼류	-	28	-	39	21%	42.82	39.95
- 화훼류	-	-	-	-	0%	-98.37	-61.69
- 과실류	3	7	4	11	6%	38.04	54.68
- 버섯류	5	9	2	3	8%	-60.67	-61.44
- 돼지고기	-	-	-	-	0%	193.97	161.58
- 가금육류	3	3	4	4	10%	49.73	43.95
- 산림부산물	-	2	-	1	1%	-80.66	-26.19
〈가공〉	179	157	186	205	5%	3.95	30.49
가공식품	179	157	186	202	5%	3.51	28.52
* 면 류	5	8	6	10	3%	17.49	30.27
* 소스류	-	1	-	1	1%	44.63	63.89
* 주 류	47	26	49	30	7%	6.1	14.52
* 과자류	4	15	4	14	4%	-15.16	-5.7
* 연초류	1	19	2	25	4%	46.36	27.97
* 낙농품	-	1	-	1	1%	-54.22	-52.29
- 목재류	-	-	-	-	0%	9.15	68
수산식품	2	28	2	31	1%	25.76	11.85
- 어 류	-	7	1	8	1%	58.13	17.24
- 연체동물	1	12	-	12	2%	-11.46	6.66
- 해조류	-	2	-	3	1%	42.31	72.19
- 갑각류	-	3	-	4	3%	21.63	48.17
- 기 타	-	5	1	4	2%	37.04	-23.42

2. 2012년도 수출전망

2-1 지역경제 및 시장여건

□ 낙관적 요인

○ 홍콩 소비시장 활황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중국인 소비가 내수 시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

- 2010년의 경우 홍콩 총 소비시장 중 35%가 중국인이 차지하였으며 중국인 관광객은 2011년 28% 증가하였으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011년 전체 관광객수는 4천만명을 넘었으며, 그 중 중국인 관광객수는 2,800만 명으로 중국인 소비액은 1500억 홍콩달러(약 22조 5천억원 / 전년 대비 10% 증가)로 2011년 홍콩소비시장의 39%를 차지, 홍콩 경제성장률에 0.5~1% 가량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홍콩 서민층 소비도 소폭 회복될 전망

- 홍콩 시민의 종합 소비자 물가지수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이 주택 임대료(31.66%), 외식비(17.07%), 식료품구입비(10.88%) 등임. 따라서 2012년 주택 및 식료품 가격 하락 전망이 현실화 될 경우 서민층 소비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최악의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버블은 다소 진정될 전망

- 홍콩의 부동산 시장이 정점을 찍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2년중 소폭의 시장 하향세를 점치고 있음
- 물가도 미달러 및 홍콩달러 안정세, 일본 방사능 사태 후 다변화된 농수산물 수입경로 확보 등의 호재로 상당부분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인플레이션은 2011년 2분기 5%, 3분기 6.1%에서 2012년 3.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

○ 중국정부의 내수 진작 노력에 따른 소비 증가 예상

- 중국의 내수시장 활황여부가 큰 변수
 - 2012년도에 중국정부는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지출을 상당부분 늘릴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내수시장 활성화 노력은 소비증가에 따른 중국의 수입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위안화의 상대적인 강세기조 유지가 예상됨에 따라 대 중국, 홍콩 수출도 호의적인 상황임

□ 비관적 요인

○ 2012년 경기 침체론 우려

- 2012년 경제성장률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전망
 - 홍콩무역발전국은 3%대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으며, 금융기관들도 내년도 홍콩 경제성장 전망을 3~4%대로 예상하고 있음
- 중국의 견조세와 홍콩정부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침체에 대응
 - 홍콩정부는 단기적으로 세계경제 회복 조짐이 없어 유럽 경제 위기가 홍콩을 포함한 전 세계에 상당기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언급. 다만, 중국의 내수시장 견조세와 홍콩정부의 양호한 재정 상태가 경기 침체기를 버텨내는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

□ 종합의견

○ 한국산 농식품은 안전성 확보, 한류 등으로 인지도 상승

- 일본 쓰나미, 대만 가소제 사건 등으로 홍콩에서는 인삼, 김치, 과일류 등 한국산 주력 품목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음

○ 한국산 먹거리 대호황으로 한국산 농식품 취급 확대 지속

- 한식당 호황, 한국 농식품 위상 강화 등으로 바이어 및 유통업체 모두 한국산 취급을 확대하고 있어 한국산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25%~30% 수준 증가 예상

2-2 주요품목별 수출전망

□ 개관

- 신선농식품 : 김치, 인삼, 과실류 등 주력상품 확대로 20% 내외 증가
- 가공식품 : 면류, 소스류, 주류, 과자류 등 인지도 상승으로 30% 내외 증가
- 수산식품 : 일본산 대체에 따른 수요 증가로 15% 내외 증가 전망

□ 품목별 전망

주요품목	'11 실적	'12 전망	전망 근거
김치	2.4백만불	증가 3.5백만불 (50% ↑)	- 한국산 김치에 대한 인지도 증가, 한식 보급 확대, TVB 김치 프로그램 방영(4월), 신규 수출업체 가세 등으로 소비자 수요 확대 전망
인삼	38.9백만불	증가 49백만불 (25% ↑)	- '11년은 인삼업계의 해외시장 확대 정책에 힘입어 40% 증가 하였으나, '12년은 지난해 하반기 한국산 홍삼가격 인상, 중화권 약재상 재고부담으로 인한 가격 인하 등으로 증가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채소류	8.3백만불	소폭증가 9.2백만불 (10% ↑)	- 안전성 확보, 연중공급 시스템 구축 확대, 홍보 강화 등으로 한국산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증가폭은 10% 내외로 전망
과실류	10.7백만불	증가 16백만불 (50% ↑)	- 유통업체 수요 증가, 홍보강화, 시식확대 등으로 지속적으로 수출확대 전망
버섯류	3.5백만불	증가 5.3백만불 (50% ↑)	- 버섯은 '10년 9백만불까지 수출되었으나 중국 정부의 광동성 수입규제 강화, 수출업체 대응 미흡 등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다시 회복추세에 있어 상당폭 만회할 것으로 전망
면류	10백만불	증가 13백만불 (30% ↑)	- 면류는 인지도 상승, 일본산 대체, 소비자 선호도 증가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 전망
주류	29.8백만불	증가 35백만불 (20% ↑)	- 주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산 맥주(Blue Girl)는 홍콩시장에서 프리미엄 맥주 1위로 자리잡고 있어 지속적인 증가세 유지 전망
과자류	13.8백만불	소폭증가 15백만불 (10% ↑)	- '11년 과자류는 기존 홍콩을 통해 수입되던 물량 일부가 직접 광동성으로 수입되어 약간 감소세를 보였으나, 건강성 및 품질 우위로 회복세 전망
수산식품	31.3백만불	소폭증가 36백만불 (15% ↑)	- 수산식품 중 굴, 해삼 등은 일본 쓰나미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되어 당분간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김, 게, 전복 등으로 한국산이 강세를 보여 전체적으로는 약 15% 증가가 전망됨

대 만

1. 2011년도 수출현황

□ '11년 한국 농식품 수출액은 250.4백만불로 전년 대비 18.5% 증가

- '11년 대만은 최초로 1인당 GDP가 2만달러를 돌파하고 경제도 4.4%대의 안정적 성장률을 보여 민간 소비가 증가하였으며, 대만산 식품의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어 한국산 농식품 수요 증가
- 증가품목은 채소류(28.1% ↑), 인삼류(60.5% ↑), 버섯류(367.5% ↑)등이며, 감소품목은 김치(10.7% ↓), 화훼류(67.8% ↓), 과실류(32.7% ↓) 등임

□ 수출실적

(단위 : 천톤, 백만불, %)

구분	2010		2011			증감률	
	중량	금액	중량	금액	비중	중량	금액
전 체	118	211	100	261	3%	-15.34	23.62
농식품	110	189	92	235	4%	-15.96	24.18
〈신선〉	35	95	34	110	11%	-2.53	15.81
- 채소류	8	7	14	9	5%	75.14	27.78
- 김 치	1	3	1	2	2%	-26.07	-10.65
- 인삼류	-	24	1	38	20%	60.45	60.46
- 화훼류	-	-	-	-	0%	-94.24	-67.77
- 과실류	20	43	11	29	15%	-41.92	-32.66
- 버섯류	-	-	-	1	3%	352.56	367.51
- 돼지고기	-	-	-	-	0%	0	0
- 가금육류	-	1	-	2	5%	5.43	21.24
- 산림부산물	5	17	6	29	17%	17.56	73.35
〈가공〉	75	94	58	124	3%	-22.28	32.68
가공식품	70	91	39	107	3%	-44.29	17.6
* 면 류	2	6	2	6	2%	8.58	12.73
* 소스류	1	2	1	2	1%	2.5	15.98
* 주 류	4	2	4	3	1%	16.44	21.17
* 과자류	3	11	3	13	3%	2.91	12.22
* 연초류	1	6	1	9	2%	49.2	38.39
* 낙농품	-	1	-	1	1%	103.56	132.26
- 목재류	5	3	12	7	7%	125.06	136.85
수산식품	8	22	8	27	1%	-6.93	18.83
- 어 류	2	6	4	10	1%	115.73	65.85
- 연체동물	2	5	1	5	1%	-54.03	3.5
- 해조류	-	5	-	6	2%	12.71	23.75
- 갑각류	-	2	-	3	2%	-30.36	20.3
- 기 타	4	4	2	2	1%	-39.41	-45.47

2. 2012년도 수출전망

2-1 지역경제 및 시장여건

□ 낙관적 요인

- 안정적인 경제성장 및 민간투자 확대로 소비시장 안정 전망
 - 대만 중화경제연구소의 2012년 경제예측에 따르면 성장률은 4.07%로 전망되어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민간소비 성장률은 2.64%로 전망되며, 민간 투자 성장률은 전년도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하여 2.4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한국산 현지 대형유통업체 취급 확대 및 인지도 제고
 - 대형 유통업체들은 대부분 외국자본으로 수익성만 있으면 외국식품을 직접 수입, 판매하고 있는데, COSTCO, 대운발, 까르푸 등에서 한국 식품을 직접 수입판매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
 - 한국산 사과, 배 등 주력 신선 수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으며, 새송이, 팡이버섯 등 공장형 농업제품들도 최근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아울러, 태풍 등 기후에 따라 한국산 배추, 양배추, 양파 등 신선 채소류의 수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장이기도 함

□ 비관적 요인

- 유럽재정 위기 및 세계경제 불안 등으로 수입시장 둔화 우려
 - 중화경제연구소의 경제예측을 보면 민간소비의 경제기여도가 1.41%로 전년도 1.79%보다 감소
 - 수출 대비 수입증가율이 낮을 것으로 전망되어 수입품 시장의 성장 둔화 예상
- 대만시장에 반 한류 공존
 - 그동안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산 가공식품 시장이 급성장하였으나, 최근 대만 내 반 한류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음

○ 대만 총통 선거 등 불안정한 정국 우려

- 금년 1월 대만의 총통 및 입법위원 선거결과에 따라 대 중국정책의 변동이 있을 경우 대만 내수경제는 더욱 침체할 가능성 상존
- 현 집권당인 국민당 승리 시 대 중국 친화적 경제정책으로 중국 특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야당 승리 시 중국과 긴장관계 조성 가능성 있음

□ 종합의견

○ 한국산 농식품 수출 고성장세 주춤

- 세계 경제위축, 대만 내 반 한류 상존, 과실류 검역강화 등으로 한국산 농식품 취급 감소 및 소비 위축

○ 한국산 품질 우위, 안전성 확보 등으로 기본적인 수요는 확보

- 일본 쓰나미, 중국 식품 안전사고, 대만산 가소제 사건 등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품질 및 안전성이 확보된 한국산에 대한 수요는 지속되고 있어 한국산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20% 내외 성장세가 전망됨

2-2 주요품목별 수출전망

□ 개관

- 신선농식품 : 김치, 인삼, 과실류 등 주력상품 확대로 20% 내외 증가
- 가공식품 : 면류, 소스류, 주류, 과자류 등 인지도 상승으로 25% 내외 증가
- 수산식품 : 일본산 대체에 따른 수요 증가로 20% 내외 증가 전망

□ 품목별 전망

주요품목	'11 실적	'12전망	전망근기
김치	2.3백만불	소폭증가 2.5백만불 (10%↑)	- 한류의 영향과 그동안 홍보, 판촉활동의 결과로 김치 인지도 향상, 현지김치와의 맛 차이로 인한 수요증가 예상
인삼	37.8백만불	증가 49백만불 (30%↑)	- 인삼공사의 직매장(49개소) 확대에 따른 판매량 증가와 그동안 뿌리삼 위주의 인삼류 시장을 제품류로 확대하여 적극적인 영업활동 결과 제품류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
채소류	9.3백만불	증가 10백만불 (20%↑)	- 채소류의 대만 수출은 대만과 한국 국내 작황에 따라 등락폭이 극심하나 통상적 상황으로 볼 때 증가폭은 20% 내외 전망
과실류	29.1불	증가 38만불 (30%↑)	- 지난해의 경우 우리나라의 일기불순으로 작황이 나빠 가격도 높았으며, 또한 사과 농약잔류검사 강화로 농가에서 수출을 꺼려 전년 대비 33% 수출 감소 - 금년 작황이 예년 정도로 회복된다면 지난 해 대비 30% 이상 수출 증가 예상
버섯류	0.8백만불	증가 1백만불 (30%↑)	- 새송이, 팽이버섯을 위주로 대만의 고급마켓인 마츠세이 매장에서 판촉결과 반응이 좋았고, 대만산 품질이 우리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시장확대 가능성 높음
면류	6백만불	소폭증가 6.9백만불 (15%↑)	- 한국라면은 이미 대만에서 인기상품으로 대형유통매장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음
주류	2.8백만불	증가 3.5백만불 (30%↑)	- 한식당 영업의 호조세에 힘입어 소주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산 맥주가 독일맥주 주문자 상표로 수출되고 있어 맥주의 지속적인 증가세 유지 전망
과자류	12.6백만불	소폭증가 14.5백만불 (15%↑)	- 한국산 크래커류와 초코파이는 대만의 대형유통매장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판매대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인기가 있으며, 가격 및 품질경쟁력이 있어 지속적으로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수산식품	26.5백만불	증가 32백만불 (20%↑)	- 수산식품은 대만의 어획량에 따라 유동적이거나 어류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오징어를 포함한 연체류가 지난해 54% 급감하였으나, 금년 예년수준을 회복한다면 전체적으로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아 세 안

1. 2011년도 수출현황

□ '11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36% 성장한 981백만불

- 아세안 지역 총 수출액은 신선농산물 145백만불, 가공식품 560백만불, 수산식품 275백만불로 전년대비 36% 성장
- 가공식품의 성장률은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신선농산물의 성장률이 전년 대비 급격히 증가('10년 성장률 33%→'11년 54%)
- 지역별로는 베트남(74%), 태국(41%), 말레이시아(44%), 인도네시아(23%)를 중심으로 높은 수출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싱가포르, 필리핀은 보합세를 유지
- 베트남은 가공식품 위주의 일반 소비재 비중이 높고 태국은 식품 가공을 위한 원재료(참치, 김 등)가 높은 수출비중 차지

□ 주요 국가별 수출액

(단위 : 백만불)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266	271.9	97	115.6	94.8	87.9

□ 국가별 주요 수출품목

(단위 : 백만불)

구분	주요 수출품목
베트남	담배(43.8), 황다랑어(10), 과자류(10), 닭고기(9.1), 면류(8.2), 조제분유(7.6), 인삼류(7.3), 오징어(6.8), 버섯류(4.9), 커피크리머(1.7)
태국	가다랑어(109), 조제품기타(53), 황다랑어(22), 김(14.6), 사료용조제품(9.8), 커피엑스(4.7), 유지조제품(4.4), 이빨고기(3.5), 대두(3.4), 고등어(3), 라면(1.9)
필리핀	과당시럽(17), 커피크리머(8.8), 라면(5.8), 조제품기타(5.3), 옥수수전분(4), 자당(2.5), 혼합조미료(2.1), 아이스크림(2.1), 곡류조제품(2), 소스류(1.7)
인도네시아	커피프리머(34.6), 사료용조제품(16), 새털(6.2), 자당(5.2), 핵산(2.6), 라면(2.3), 유지조제품(1.7), 대두(1.6), 담배(1.4)
말레이시아	조제품기타(18.3), 옥수수전분(10.7), 옥수수박(5.2), 단감(4), 라면(3.3), 대두박(2.9), 이빨고기(2.6), 유지조제품(2.3), 건조굴(2.1), 딸기(1.6)
싱가포르	맥주(6.8), 담배(6), 딸기(5.2), 커피크리머(5.2), 건조굴(4.8), 이빨고기(4.8), 조제품기타(4.6), 홍삼(4.2), 라면(2.4), 단감(1.7), 버섯류(1.3)

□ 수출실적 [아세안전체]

(단위 : 천톤/백만불)

구분	2010		2011			증감률	
	중량	금액	중량	금액	비중	중량	금액
전 체	530	720	527	1,032	13%	-0.51	43.39
농식품	368	522	369	757	14%	0.13	45.09
〈신선〉	44	94	49	145	14%	11.52	53.65
- 채소류	3	19	3	14	8%	-11.88	-26.21
- 김 치	-	2	-	2	2%	5.77	12.16
- 인삼류	1	11	1	15	8%	9.72	39.76
- 화훼류	-	-	-	0	0%	190.4	85.66
- 과실류	11	15	12	17	9%	6.48	10.61
- 버섯류	3	5	5	9	24%	58.32	58.82
- 돼지고기	-	-	-	0	0%	-13.1	6.08
- 가금육류	18	20	19	22	54%	4.44	10.32
- 산림부산물	8	22	10	67	39%	26.94	198.24
〈가공〉	324	427	319	612	14%	-1.43	43.2
가공식품	306	416	274	551	14%	-10.41	32.45
* 면 류	6	23	9	33	11%	37.99	47.26
* 소스류	3	9	4	14	9%	40.55	56.26
* 주 류	13	13	15	16	4%	14.96	16.84
* 과자류	6	26	7	26	7%	1.6	2.23
* 연초류	4	48	6	69	12%	44.13	42.79
* 낙농품	1	10	1	9	13%	9.82	-8.67
- 목재류	18	11	19	9	10%	8.75	-16.56
수산식품	162	198	159	275	12%	-1.96	38.9
- 어 류	121	137	125	207	16%	3	50.58
- 연체동물	7	17	4	18	4%	-40.42	6
- 해조류	2	18	2	22	9%	10.12	21.32
- 갑각류	-	2	1	6	5%	211.86	197.6
- 기 타	31	23	27	22	14%	-14.1	-6.09

2. 2012년도 수출전망

2-1 지역경제 및 시장여건

□ 낙관적 요인

- 인도네시아 6.3%, 베트남 5.8%, 태국 5%, 필리핀 5% 등 '12년 아세안 지역 주요 국가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는 밝음을 표시
- 태국은 수해복구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세금감면 등의 혜택 제공을 통해 농업, 서비스업의 회복 가속화로 빠른 정상화 전망

- 필리핀은 9,400만 인구에 기반한 IT와 식품 위주의 소비제품 수요 확대에 의한 튼튼한 내수기반 유지가 가능해 외국인 투자기업 위주의 대외교역에 따른 불안요인 상쇄
- 베트남의 경우,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와 인지도로 직결되는 일반 소비재 제품의 수출 증가율이 높아 지속적인 한국 식품 전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말레이시아 단감, 싱가포르 딸기 등 각 지역별 대표 한국 신선 농산물 수입 벤더들의 판매에 대한 자신감 확보로 품목 다양화를 위한 기본 여건 조성
- CJ, 인삼공사, 롯데제과 등 한국 식품기업의 아세안 지역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지 조직 구성 및 운영으로 해당 품목 수출확대 기대
- K-POP, 드라마 등으로 인한 비즈니스 한류 효과로 인해 한국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가치도 더불어 높아지고 있고, 다양한 식문화에 대한 높은 수용도 영향으로 한국 식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비관적 요인

- 베트남 경제성장 정책에 따른 급격한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소비성향 감소 우려(물가상승률 전망치 : 베트남 9%)
- 태국 홍수 피해로 인한 기반 생산시설 손실, 주요 산업인 관광산업의 악화 등으로 전체적인 가계 소비심리 위축 전망
- 필리핀은 미국의 경기침체와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소비위축이 심화될 경우 IT, 식품 등 소비제품의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짐
- 싱가포르는 170여 개의 한식당 활성화,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의 진출 활성화, 대형 유통업체 내 한국 식품 상설코너 확대 등 식문화에 대한 인식 및 판로 기반은 구축되어 있으나, 협소한 시장 자체가 한계
- 인도네시아 수입규제 강화로 인한 수입 여건 악화
 - 수입·검역을 위한 항구 제한 및 서류 심사 강화 등으로 수입통관 절차 강화 및 소요시간 증가

□ 종합의견

- 베트남을 중심으로 소스, 면류, 음료 등 가공식품, 태국을 중심으로 참치, 김 등 식품 가공 원재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단감, 딸기, 배, 사과, 포도 등 과채류가 주요 수출 성장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
- 아세안 지역의 비즈니스 한류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영향으로 한국 식품과 식문화에 대한 선호도도 지속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12년 수출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11년도 수출 성장세와 유사한 35%대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가공식품은 30%대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신선농산물/수산물의 성장세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됨

2-2 주요품목별 수출전망

□ 개 관

○ 신선농식품

- 인삼류, 버섯류, 과실류, 산림부산물을 중심으로 4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과실류의 경우, 국내 생산 및 가격에 대한 해외 시장에서의 민감도가 높아 불안요소 상존하나 딸기, 단감, 사과, 포도 등 신선 과실류의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버섯류는 팡이버섯 중심으로 대형유통업체 입점 매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새송이 버섯의 경우에도 점차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 인삼류는 국내 대표 브랜드 업체의 공격적인 아세안 시장 진출 공세

○ 가공식품

- 한류의 영향으로 한식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가 지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면류, 소스류, 음료류, 커피류 등 일반 소비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반 소비재 상품의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

- 또한 아세안 지역 대형 유통매장 한국 가공식품 입점 확대 추세 및 한국 식품 기업들의 현지 진출로 인한 수출 활성화 등에 기인하여 전반적으로 3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수산식품

- 태국의 참치, 김 등 식품가공 원재료용 수출을 중심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소규모이나 캐비어, 훈제연어, 전복 가공제품 등 신규 품목 출시는 수산식품 수출증가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참치 등 원양 어업의 어획량에 따라 수출액의 증감폭이 커지는 불안 요소가 있으나, 현 추세를 이어 간다면 약 3억불 수준의 수출 전망

□ 품목별 전망

주요품목	'11 실적	'12 전망	전망 근거
딸기	8.5백만불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및 가격변동에 현지 시장의 민감도가 매우 높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시장에서의 한국산 딸기에 대한 선호도 및 인지도 확보 ○ '11년 수출가격 상승에 의해 주요 시장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시장 수출액 감소 ○ 인도네시아는 20% 이상의 성장세로 신규 수출시장으로서의 가능성 내재
배	1.8백만불	소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산 신고배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강화에 따른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른 경쟁 심화 ○ 지역별 고급 과실 전문 매장 입점 확대로 중국산 신고배와의 차별화 마케팅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 MBG, 인도네시아 SOGO 등
단감	7.8백만불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47%, 말레이시아 12%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쟁품목인 샤론품종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로 수출물량 증가 예상
버섯류	8.6백만불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팡이버섯을 중심으로 대형유통매장 입점 판매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새송이버섯도 고급 식자재로의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 ○ 수출업체-벤더의 1대1 매칭으로 시장가격 유지 안정화 및 품질향상

주요품목	'11 실적	'12 전망	전망 근거
김치	1.8백만불	소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대부분 유통매장에 정식 입점 판매중이나 소비량 증가에는 한계 ○ CJ 아세안 지역본부 설치 및 시장개척 활동으로 점차 입점 매장 증가 추세
인삼	15백만불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브랜드 업체의 아세안 수출조직 구축 ○ 수출업체 자체 인삼홍보 강화(버스광고, 빌보드 광고 등) 및 인삼세미나 등 수출지원 강화 ○ 한국인삼공사의 인도네시아 본격 진출 가속화
가공식품	560백만불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로 인한 소비자 노출빈도 확대로 소스류, 면류, 커피류, 음료류 등의 유통매장 입점 및 상설코너 운영 확대 ○ 특히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주류(17%, 소스류(56%), 면류(47%) 등이 성장세를 이끌 것으로 전망 ○ 아세안 지역 내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 증가로 중국산 대체 수요 증가 예상 ○ 가계 구매력 증가 및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평가 기준(안전성) 변화로 한국식품 선호도 증가
수산식품	275백만불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획량에 따른 수출 증감폭이 큰 참치의 수출비중이 높아 불안요소가 상시 존재하지만, 조미김, 갑각류 등의 지속 성장세 유지 ○ 캐비어, 훈제연어, 전복가공품 등 신규 품목의 신규 시장 진출

1. 2011년도 수출현황

□ '11년 수출액은 작년에 비해 1.61% 증가,

- 2011년 7월 1일부로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관세 철폐, 일본 지진에 따른 방사선 유출 문제 등으로 가공식품류(면류, 김, 당류, 장류 등)의 수출은 증가
- 그러나 어류는 어획량 부족, EU 수출시의 어획증명서 요구 등으로 대폭 감소되어 수출액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수출실적

(단위 : 톤, 천불, %)

구분	2010		2011			증감률	
	중량	금액	중량	금액	비중	중량	금액
전 체	162	333	144	361	5%	-10.85	8.48
농식품	113	204	110	263	5%	-2.46	28.81
<신선>	11	21	5	21	2%	-50.53	0.85
- 채소류	7	7	-	3	2%	-95.57	-56.49
- 김 치	1	2	1	2	2%	17.03	23.01
- 인삼류	-	3	-	3	2%	28.07	1.42
- 화훼류	-	2	-	1	1%	-62.6	-33.17
- 과실류	2	2	3	3	2%	43.28	70.37
- 버섯류	1	4	1	6	16%	44.73	57.06
- 돼지고기	-	-	-	-	0%	-91.5	-86.42
- 가금육류	-	-	-	-	0%	0	0
- 산림부산물	-	1	-	2	1%	59.1	95.3
<가공>	102	184	105	242	6%	2.63	31.93
가공식품	99	179	96	214	6%	-2.63	19.38
* 면 류	6	16	8	21	7%	26.64	30.86
* 소스류	1	3	2	4	3%	18.18	33.47
* 주 류	1	1	1	1	0%	10.58	-21.41
* 과자류	1	3	1	4	1%	32.78	41.6
* 연초류	-	-	-	2	0%	911.85	361.4
* 낙농품	-	-	-	-	0%	-99.78	-99.98
- 목재류	3	4	4	5	5%	23.98	23.79
수산식품	49	128	34	98	4%	-30.37	-23.89
- 어 류	43	101	28	68	5%	-34.62	-32.42
- 연체동물	4	18	4	18	4%	-7.28	-0.48
- 해조류	1	4	1	4	2%	18.46	12.58
- 갑각류	1	5	1	6	5%	6.68	16.39
- 기 타	-	1	-	2	1%	80.38	67.19

2. 2012년도 수출전망

2-1 지역경제 및 시장여건

□ 낙관적 요인

- 1~2년 사이 유럽 전반에 퍼진 K-pop 열풍은 유럽인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음
 -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에 대한 흥미 및 선호도가 높아짐
- 한식을 제외한 중식, 일식, 태국 음식 등 주요 아시아의 음식이 이미 유럽에서 붐을 일으키고 가라앉으면서 '새로운 음식'을 찾는 경향이 있음
 - 한류 열풍과 함께 한식이 '새롭게 유럽을 주도할 음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점
- 한국 및 아시아 마켓을 벗어나 현지 유통마켓과 한국 식품에 대한 프로모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면서 현지인들에게도 가까이 어필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예) 2011 영국 TESCO 연계 한국식품 판촉, 영국 Harrods 연계, 프랑스 LeClerc 등
- 동유럽의 한인 식품점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현지 유통업체와 연계한 한국 식품 프로모션 진행
 - 서유럽뿐만 아니라 동유럽 전반에서도 한국 식품을 홍보하기 위한 판로 구축
 - 예) 2011 체코 TESCO 연계 판촉
- 2011년 일본 지진에 따른 방사선 유출의 여파로 유럽인들로 하여금 일본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음
 - 대체식품으로 한국산 제품을 구입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제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 마련 및 틈새 공략

□ 비관적 요인

- 지속되고 있는 유럽 경제 위기에 따른 EU의 수입량 감소
 - 남유럽 중심으로 확산된 경제 위기가 유럽 전 국가에 영향을 끼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 및 개인소비가 둔화되는 경향이 2012년도 계속될 전망
- 중국산과의 가격경쟁에 따른 시장 경쟁 지속
 -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과의 가격 경쟁 지속 및 중국산임을 속이고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발생
- 2010년부터 시행된 제 3국의 대EU 수산식품 수출을 위한 '어획증명서' 제출 등 수산물에 대한 EU 수입 규정이 점차 까다로워짐에 따라 관련 서류 미비에 따른 수출 애로 발생

□ 종합의견

- 2011년 이후 2012년 유럽 경제의 회복세, K-pops 인기 등 한류 선호 분위기, 한·EU FTA 효과 지속 등 전반적인 한국식품의 대 EU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 예상
- 또한 방사선의 위험으로 일본 식품의 안전성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시점에 대체품목으로 틈새를 공략시 오히려 수출량이 증가할 수 있는 기회 예상
- 반면 수산식품류는 어획량 쿼터제 실시,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한 IUU 증명서 요청(어획증명서) 등의 까다로운 절차 도입으로 수출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올해 수산식품 수출량이 2012년 한해 총 수출 증가율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2-2 주요품목별 수출전망

□ 개관

- 신선농식품 : 현지 유통업체와 지속적인 관측으로 한국산 신선농식품의 인지도 고양 및 품질을 인정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유럽산 및 중국산과의 가격 경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

- 가공식품 : 2011년 한-EU FTA 발효 후 주요 가공식품류(면류, 소스류 등)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수출량 호조 및 유럽의 한류 열풍에 따른 한국 식품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수출량 증가 기대
- 수산식품 : 국제 유가 상승 및 환율 불안정 그리고 제3국에 대한 EU의 수산물 수입조건이 점점 까다로워짐에 따라 수산식품의 수출량은 예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됨

□ 품목별 전망

주요품목	'11 실적	'12 전망	전망 근거
버섯류	6,304천불	소폭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몇 년간 현지 유통업체와의 꾸준한 판촉 진행 및 판매율 통해 한국 버섯의 품질을 알리면서 꾸준히 수출량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버섯류 수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 3,563천불 (815톤) • 2010년 : 4,012천불 (932톤) • 2011년 : 6,304천불 (1,349톤) - 단, 중국산 버섯이 한국산으로 둔갑하여 팔리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견됨으로써 원산지 보호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필요
김 치	2,337천불	소폭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 열풍에 따른 한국 식품 선호도 강화에 따라 한국 음식을 대표하는 김치의 수출량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김치 수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 840천불 (257톤) • 2010년 : 1,900천불 (614톤) • 2011년 : 2,337천불 (718톤)
혼합 조제식품	128,536 천불	보합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적인 혼합조제식품인 리신은 기존 거래선을 위주로 꾸준히 거래되고 있으며, 수출량에 큰 변화 없이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인삼류	2,791천불	보합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삼차 등이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으나 아직 유럽은 한국산 인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 - 유럽 일부 국가에서 인삼을 '약'으로 분류하면서 수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등 올해 전망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

주요품목	'11 실적	'12 전망	전망 근거
소스류	3,577천불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년과 더불어 계속되고 있는 한류 열풍은 소스류(불고기 소스 등)의 판매를 촉진할 전망 - 꾸준한 인기 품목으로 아시아 및 현지인들에게 인기있는 품목으로 자리 잡음
주류	1,146천불	소폭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 열풍과 더불어 한국 전통 술인 막걸리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 증가, 올해 수출량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 - 현지 한인 마켓 중심으로 기본 막걸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맛이 첨가된 막걸리(탄산 막걸리, 과일맛 막걸리 등)의 판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맛의 막걸리 수입을 추진 중
면류	20,532천불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 열풍과 함께 인기 품목 중 하나인 면류의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면류의 수출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 - 한-EU FTA 체결 후 면류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서 소비자 가격도 하락, 이는 소비자의 구매 촉진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 ※ 면류 관세율 변화 (2011년 7월 1일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면 : 6.4+€ 24.6/100kg → 0 • 국수 : 7.7+€ 21.1/100kg → 0
화훼류 (선인장)	1,278천불	소폭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11년 기후문제로 주문량 대비 약 49.2% 정도만 수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인장류의 수출량이 감소하였으나, '12년 기후 전망을 보건데 예년에 비해 많이 춥지 않을 것을 기대, 수출량을 소폭 회복할 것으로 전망 - '12년 하반기 '온실 선인장'의 건립(고양시)을 추진 중인 것을 미뤄볼 때 재배 면적의 증가로 수출 물량이 증가 될 것으로 기대
굴	1,957천불	보합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을 인정받은 한국산 냉동굴은 현지 슈퍼마켓 판매 뿐만 아니라 현지 아시아 식당 등에 꾸준히 납품되고 있는 등 점차 판매처를 늘리고 있는 추세 - 단, 저렴한 중국산 굴과의 가격 경쟁 구도에 대해 지켜 보아야 할 것
김	3,009천불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일본 지진에 따른 방사선 검출로 인한 일본산 김의 소비가 주춤한 가운데 한국산 김의 소비 증가 및 인기 상승 - 한국김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우호적인 상황에서 수출량 증가와 시장 점유율 상승이 예견됨

주요품목	'11 실적	'12 전망	전망 근거
바지락	11,286천불	보합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시장 규모가 큰 스페인과 주변국 포르투갈 중심으로 바지락 수출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남유럽의 경제 위기'가 악화되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수출량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 - 유럽 연합 내에서는 2012년에도 남유럽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의 경제 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가 높음
참치류	29,025천불	보합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지속된 엔화의 강세가 2012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당분간 참치 가격의 고공행진은 계속될 전망 (어획 후 1차 판매시 엔화로 거래) - 참치의 어획량 지속적으로 감소, 꾸준한 유가상승 등이 참치의 가격을 증가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수출을 하더라도 손익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발생. 즉, 수출 증가 여부는 불투명



10 141



수출 100억불 달성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제식품박람회 트렌드 분석



1 2011 국제박람회 3대 트렌드

즉석 편이식품 비중확대

- Ready-to-Eat, Catering 식자재, 소포장(경기침체, 1인 가정), Bio 패스트 푸드

Organic, 건강식품 강세

- 웰빙, 건강 Life Style, 유기농 제품, Free제품(Gluten-free, Sugar-free)

식품 안전성 부각

- 자국산 불신(일본,중국), 수입식품 선호, Baby & Kids 시장, 이력추적시스템

1-1 일본(동경식품박람회)

간편식, 즉석식품 비중확대

- 바쁜 일상,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제품 (즉석밥, 젤리소스)



소포장, Ethnic Foods 강조

- 나홀로 가정 증가, 경기 침체로 소포장 발달
- 국가관별 전통문화 연계 식문화 홍보활발



한국시장 마케팅 시도

- 일본시장 이외 한국시장 진출 추진



2

1-2 중국(SIAL CHINA, 상해식품박람회)

Wine 출품 확대

- 아시아 최대시장으로 급부상, 경쟁국 출품 확대



안전성 부각, 수입상품 선호

- 자국산 불신, 수입상품 시장 급 성장
- 한국산, 대만산 등 대체상품으로 인식



BABY, KIDS FOODS 시장 부상

- 유기 분유 등 기능성 소재 활용 품목 다양화



3

1-3 동남아(홍콩, 대만, 방콕, 베트남식품박람회)

한류 확산에 따른 한글 포장 인기

- 한국드라마, K-POP 영향, 한국상품 선호도 증가



일본 원전사태로 대체상품 부각

- 고소득층 유입, 웰빙 확산으로 고품질 수요증가
- 일본 원전사태 이후 대체상품 증가(원재료 등)



HALAL 인증식품 급 부상

- 이슬람 식품시장이 하나의 주류로 등장



4

1-4 중동(두바이식품박람회)

음료시장의 급격한 성장

- 탄산수, 생수 및 과일주스의 인기
- 알콜음료의 판매 제약으로 비알콜 희석음료 각광



쌀, 채소 등 1차 농산물 거래 활발

- 생산기반이 없는 중동시장 겨냥 기초식량 거래



할랄(Halal) 인증 제품 강세

- 다국적 신선육 생산자들의 할랄제품 유통



5

1-5

미국(애너하임, 워싱턴, PMA박람회)

Free 제품 강세

- Gluten-Free, Sugar-Free 등 무첨가 제품



유기농, 즉석 편이식품 부각

- Ready-to-Eat 자연, 유기농 편이식품 증가세
- 천연 식재료 활용 제품 전시활발(스프, 파스타 등)



식품안전성, 이력추적제(Traceability) 대두

- 식품안전성 중요성 부각, 이력추적제 적용방안



6

1-6

유럽(필른식품박람회)

Catering 식자재 시장확대

- 식재료 Food Service, 대량 공급 완제품



Organic, Bio Foods 부각

- 유기농 출품 확대, 유기재료 이용증가 예) 유기농 차, 치즈
- Bio 패스트푸드 등 웰빙, 건강 Life Style 반영



Bio-Bambustee
Bambus, der Hauptbestandteil dieser Produkte, stammt aus Dampung. Dampung ist
kulturell der bekannteste Ort für Bambus in Korea. Die wichtigste Zutat der Produkte
sind organische Bambusblätter. Für den Tee werden nur ganz junge Blätter verwendet.
diese Entnommen sich auf fünf Wochen im Jahr beschränkt. Die frischen, von Hand
geernteten Bambusblätter müssen noch am gleichen Tag in einem aufwändigen
Verfahren weiterverarbeitet werden.

공정무역(Fair Trade) 제품 거래

- 아프리카 등 제3세계 원재료 사용제품 유통 시작



· 공정무역(Fair Trade) : 아프리카 등 제3세계의 농민 등 생산자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거래(상품) 예) 공정무역커피

7

2 2012 국제박람회 3대 트렌드 전망

소포장, 대체상품 부각

- 경기침체 지속으로 소용량, 중저가 선호, 방사능 등 안전성 강조 / 일본, 중국

Organic, Ethnic Foods 강세 지속

- 웰빙, 건강관심 지속 확대, 타민족식품 소비 증가 예상 / 미국, 유럽

한류확산, 한글상품 부상

- 한류영향, 한글포장 상품 각광 (가짜 수입상품과 차별화) / 동남아, 중동

8

3 2012 국제박람회 운영방향

안전성, 고품질 유망상품 발굴

- 신선편이(Cutting 채소) 식품 등 대체상품, 바이어 수요조사 품목 등 전시
 - 동경식품박람회, SIAL CHINA, 홍콩식품박람회, 상해식품박람회 등

한식을 웰빙, 건강식으로 부각

- 유명 요리사 활용 한국식문화 홍보, 식재료 등 Ethnic Food 시장개척
 - 애너하임건강박람회, 워싱턴식품박람회, 파리식품박람회 등

한류스타 마케팅 강화

- 홍보대사 (원더걸스, 슈퍼주니어) 뮤직비디오, 이미지 활용 등 홍보
 - 싱가포르식품박람회, 방콕식품박람회, 호치민식품박람회, 상해식품박람회 등

9

aT Focus

2011. 1. 28 창간

발 행 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발 행 일 : 2012년 1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문 의 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수출정보팀
02) 6300-1393, 1399 / info1@kati.net

본 자료는 KATI(www.kati.net) > 무역정보 > 발간책자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공사 해외 aT센터에서 작성한 자료를 식품수출정보팀에서 취합한 자료이며, 부록 '국제식품 박람회 트렌드 분석'은 해외마케팅팀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